석유화학, 중국 통상마찰이 걸림돌!

상공회의소, 원자재 가격 골치 … 미국의 통상보복도 국내경제 위협

국내기업들이 저임금과 대량생산을 무기로 한 중국기업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을 경영여건 상 최대 현안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현안과제와 대응전략을 조사·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응답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상승 ▷과도한 생산설비 증가 ▷글로벌 경쟁 격화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업계마다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장기공급 계약을 유도하며 생산시설 해외 이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해외 현지투자 및 전략적 제휴 강화 등의 노력에 힘을 쏟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화학산업은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압력 수단으로 WTO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빈번하게 이용함에 따라 ▷원유 및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인상 ▷상품가격 하락 ▷중국과의 통상마찰 확대 등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석유화학업계는 지속적인 공정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기존의 저가 범용제품 중심의 물량수출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유산업은 원유에 대한 관세비율과 수입부담금이 경쟁국에 비해 너무 높고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로 ▷원유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석유시장 경쟁격화 등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로 선정했다.

정유업계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유에 대한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주요선진국 및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수익위주의 경영과 유통질서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섬유업계는 중국 섬유산업의 급부상과 국제유가 불안정, 세계적인 화학섬유 생산설비의 과다한 증가 등으로 인해 ▷화학섬유 사나 직물보다는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차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조사됐다.

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경제가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금융시장 불안, 미국의 통상 보복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무엇보다도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해소와 확대재정 정책 등 경기부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1>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